

통일 칼럼

北의 500만명 청년동맹

북한 주민들은 어려서부터 의무적으로 학교와 직장, 지역을 기반으로 한 여러 조직에 들어간다. 이 가운데 청년동맹은 청년층을 당의 규율에 묶는 노동당의 핵심 외곽단체로 꼽힌다.

최근 북한 당국이 5년 만에 청년동맹 제11차 대회를 열고 청년들에게 당 정책을 관철하고 건설과 국방 현장에 참여하라고 독려했다.

지난 4월 30일, 어둠이 내려앉은 평양 김일성광장. 북한 청년동맹 제11차 대회를 기념하는 축적이 하늘 높이 터져 오르는 가운데, 야간 행사가 막을 올렸다.

광장을 폐곡히 메운 북한 청년들은 노래에 맞춰 춤을 추고, 어린 학생들은 각종 공연을 펼치며 분위기를 한층 끌어올렸다. 이번 야간행사의 하이라이트라 할 수 있는 청년동맹의 댄스 행진이 시작됐다.

김 위원장과 당의 평평에 충실해 따르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이들의 충성심을 독려하며, 9차 당대회에서 제시한 새로운 5개년 계획의 달성을 강조했다.

이는 국가 과업 달성에 필요한 인



정복규
논설위원

력 동원을 염두에 둔 행보라는 분석이다. 500만 명에 달하는 청년동맹의 노동력이 사실상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1946년 창설된 청년동맹은 14살부터 30살까지의 북한 주민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대중 정치조직으로 노동당의 핵심 외곽단체 중 하나다. 북한에는 다양한 조직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청년동맹이 갖는 의미는 특별하다.

바로 노동력 공급의 핵심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고난의 행군' 시기 각종 도로와 지방 발전소 건설도 청년들의 피와 땀으로 이뤄졌고, 최근 조성된 평양 신도시의 살림집

과 새 거리 건설에도 청년들이 대거 투입됐다.

김정은 위원장도 집권 초기부터 줄곧 청년 중시를 강조해 왔다. 2012년 청년절에는 전국의 청년 대표 1만여 명을 평양으로 초청해 '청년을 행하는 지도자' 이미지를 부각했고, 각종 유희시설을 확충하며 청년들 민심을 잡는 데 주력했다.

그러나 현실은 이 같은 주장과는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김정은 집권 이후 잇따른 대규모 건설 사업으로 인력 동원과 비용 거출이 잦아지자 청년들의 불만이 상당히 커진 것으로 전해진다.

내부적으로 청년들의 불만이 커지

자 북한 당국도 최근에 불만 완화를 위한 조치에 나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 일환으로 북한 당국은 러시아 파병 전사자와 유족들에 대한 파격적인 예우와 지원을 부각하는 모습이다.

하지만 북한 당국이 제시하는 보상의 대부분은 상장이나 기념품, 영웅 칭호 등에 그쳐 실질적인 대가와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다. 북한 매체가 연일 부각하는 농촌과 탄광, 건설현장 등 현지에 지원되는 청년들 소식도 사실상 강제가 깔려 있다는 증언이다.

북한이 내세우는 애국의 범위는 내부 동원을 넘어 해외로까지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러시아 등 분방 지역으로의 파병뿐 아니라 건설 인력으로 청년들을 해외에 파견해 외화벌이에 동원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북한 체제 유지와 노동력 동원의 핵심 축인 청년동맹은 최근 건설 사업으로 그 역할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 동시에 커져가는 불만을 잠재우고 청년들을 충성의 대상으로 계속 묶어둘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사설

현대인의 퍼스널 트레이닝

퍼스널 트레이너(Personal trainer)는 운동을 개인적으로 지도해주는 직업이다. 운동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갖춘 트레이너의 일대일 맞춤 지도를 말한다.

개인 트레이너(CPT)는 건강한 개인 및 그룹, 또는 운동할 수 있는 의료 허가를 받은 사람들을 위한 안전하고 효과적인 운동 프로그램을 만들고 제공하는 사람이다.

사람마다 신체적 특징과 생활환경이 다르므로, 트레이너는 개인에게 알맞은 프로그램을 개발해 개별 운동 서비스를 제공한다.

개인 트레이너는 건강한 개인 및 그룹, 또는 운동할 수 있는 의료 허가를 받은 사람들을 위한 안전하고 효과적인 운동 프로그램을 만들고 제공하는 사람이다.

또한 개인 트레이너는 사전 건강 점진으로 시작하여 다양한 평가를

수행하며 자세 및 움직임에 대한 평가도 포함될 수 있다. 효과적인 운동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관련 정보를 관찰하고 수집해야 한다.

유연성, 균형, 핵심 기능, 심폐 건강, 근력 건강, 신체 구성 및 기술 관련 등이 모두 중요하다. 힘, 민첩성, 조정, 속도 및 반응성 등 고객의 목표 달성을 지원한다.

개인 트레이너는 기본 평가를 고객의 신체적 능력의 시작점으로 사용하고 개인에게 적합하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진행 모델에 따라 운동 프로그램을 만든다.

일반적인 건강 및 영양 지침을 포함하여 웰빙의 다양한 측면에 대한 교육도 제공한다.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는 변화할 수 있다는 믿음과 함께 포괄적인 중심 접근이 필요하다.

전주현대미술관의 한글 기획전

최근 소통의 도구 한글이 기능적 의무를 내려놓고 시각적인 생명체로 재탄생했다. 전주현대미술관에서 최근 열린 '한글이 숨 쉬다' Font Art 모색'은 남작한 기호로 박제된 문자에 조형적 숨결을 불어넣는 실험의 장이다.

지난해 첫선을 보였던 기획전을 계승한 이번 전시는 필획을 중시하는 전통서예와 색채를 강조하는 현대 회화의 접점을 찾았다. 이를 통해 문자의 질감을 복원하려는 논리적 화두를 던진다. 전시에는 김춘선, 송하진, 박인선, 이기전, 이동근, 이성재, 이적요, 이희춘, 차유림, 최동명 등 10명의 작가가 참여했다.

이들은 한글을 해체하고 재구성해 24개 자음과 모음이 품고 있는 아름다움을 시각화한다. 특히 서예는 색채를 수용해 회화로 나아가고 회화는 서예적 깊이를 확보

하는 상호침투가 핵심이다. 실제로 작품 면면을 보면 관습을 탈피하려는 구체적인 시도가 보인다. 차유림 작품 '기록된 신체'는 인체의 원초적 곡선인 누드를 배경으로 문자를 배치해 인간의 관계와 생명력을 은유한다.

문자가 신체적 실체와 결합했을 때 발생하는 긴장감을 마주할 수 있다. 이적요는 붓질 대신 바느질이라는 수행적 노동을 택해 문자에 촉각적인 질감을 부여했다.

이희춘의 '버무는 것들'은 한글과 한글, 사람의 형상을 입체적 서사로 전환한다. 서예가 송하진과 최동명은 전통서법의 경계를 허물어 자유롭고 거친 회화적 필치를 드러내며 서예의 새로운 영토를 제안한다.

이기전은 '불'이라는 소재를 통해 문자의 조형적 환형을 극대화했다.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학교는 범죄 대상이 아니다”



지난 4일(현지 시간) 나이지리아 아부자 거리에서 한 남성이 최근 전국 각지에서 발생한 대규모 학생 납치 사건과 관련해 정부의 신속한 구조와 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시위하고 있다.

볼리비아 도로 봉쇄에 농민들 직접 장 열고 직거래



지난 4일(현지 시간) 볼리비아 아비르카토에서 농산물 생산자들이 임시 시장을 열고 농산물을 판매하고 있다. 이 시장은 반정부 시위대가 도로를 봉쇄하고 시위를 이어가면서 도심으로 생산품을 운송할 수 없게 된 생산자들이 직접 마련했다.

사내·외기고 및 칼럼은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전주매일

독자 여러분의 의견이 담긴
기고와 투고를 기다립니다.

(우)560-912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 568-80 송주빌딩 4층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행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어려움을 속 시원하게 풀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